

# 82년도 채란계 전망

- 생산측면 현저히 감소, 소비는 특별한  
감소요인없어 비교적 희망적 -

김 호 섭  
(천호부회장 영업부장)



## 현 황

우리나라 채란업계는 최근 2~3년간의 불황속에서도 급격히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다. 사육규모면에서 부업내지는 전업의 단계에서 차츰 기업화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케 할 정도로 대군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군화, 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만 산업추세에 끌려 어쩔수없이 규모만 확대되는 기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것 같아서 심히 우려감이 들며 문제시 삼아야 마땅 하리라 생각된다.

작은 체구의 사람이 큰옷을 입고, 작은 발에 큰 신을 신었을 경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속과 겉이 상이한 외형만의 성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이라기 보다는 모래위에 누각을 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를바 있겠는가? 우리 채란업의 양상을 보면, 늘 그러했듯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총력을 다해 단합된 힘을 보이다가도 일단 경기가 회복세에들면 모든것을 망각하고 언제

불황이 있었더라는 식, 즉 아이러니한 말로 “너죽고 나살자”는 식으로 규모 확장에만 혈안이되는 병폐(?)가 없지 않았다.

또한 더큰 문제는 다수의 채란업자들은 하기좋은말로 호황과 불황은 주기적으로 당연히 반복되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체념하고, 기회만 노리는 극히 이기적인 사고행위를 하고있음을 볼때 어찌 안정된 업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런지? 표현이 너무 과격 했으면 용서하기 바라며, 분명한것은, 불황과 호황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을 깊이 반성해야 되겠다.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출선해서 문제해결을 해나갈때 우리 모두가 안정을 찾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 하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혹시 아직도 “너죽고 나살자”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야가가 있으면 반성하고 모두가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개척하도록 노력해야 겠다. 우리는 2~3년간 그 어느때보다도 장기적이고 극심했던 불황을 슬기롭게 넘기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악순환의 주기

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경영에 주력해야 되겠다. 여기 82년도 채란업전망 및 추세를 각종 연관 자료로 분석 설명하고자하니, 독자 각각의 여건에 알맞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전 망

채란업의 경기전망을 하기위해선 간단히 말해서 계란가격에서 생산원가를 제한 수지타산, 즉 손익 관계 및 그 정도를 예측함이 좋을것 같다. 82년도에 형성될 평균 계란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계란 생산공급과 소비 수요 추세를 추정하므로써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며 계란의 생산원가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면과 외부적 여건에 따라 변수적인 면을 추정 검토하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란업의 경기전망에 관련된 요인들이 거의 모두가 상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외부 여건에 따라 변화의 소지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과학적이고 확실한 지수나 수치로 제시하지 못함은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한편으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업계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본인도 여기서 다만 관련자료만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전망은 채란업을 하는 여러분 각자가 예측하기 바란다.

### 계란생산 공급량 추정에 필요한 자료

#### 1) 년도별 초생추 출하실적 자료

(표1)에서 년도별 월별 산란용 초생추 출하내역을 볼수있는데, 돌이켜보면 77,78년도 채란업은 매우 좋은 경기를 누렸으며 79년 상반기부터 적자 경영을 면치 못했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국제적인 불황의 영향으로 소비감

표1. 초생추 출하실적 (단위 1,000수)

년도별 월별	77	78	79	80	81
1	842	1,423	2,296	1,305	868
2	1,038	1,731	2,609	1,370	1,090
3	2,346	2,658	3,760	2,504	2,149
4	2,527	3,260	3,357	2,872	2,255
5	2,270	3,306	1,660	2,322	1,742
6	1,532	2,430	1,595	2,172	1,488
소 계	10,555	14,808	16,277	12,545	9,592
7	1,070	1,524	1,062	1,836	1,636
8	991	1,553	1,205	2,046	1,740
9	1,102	1,737	1,729	2,311	1,858
10	1,350	1,999	1,860	2,356	2,010
11	1,470	2,424	1,852	1,051	(1,000)
12	1,696	2,633	1,443	929	(1,000)
소 계	7,676	11,870	9,151	10,529	(9,244)

\*( )는 추정치

퇴, 오일파동에 따른 사료가 인상등으로 적자경영이 되기도 했겠지만 우리업계 내면의 문제도 없지 않았다고 본다. 한 예로서 77년도를 기준으로볼때 78년도엔 46%, 79년도엔 39%, 80년도엔 26.5%의 물량증가가 있었음을 가볍게 넘길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소 위안이 되는것은 80년도 11월부터는 과거 5년동안에 최하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1년상반기에도 77년이래 최저수준인 78, 79년도보다 30~40%씩 격감된 실정으로 앞으로 성계 보유수수가 갑자기 격감될 시기가 올것으로 예측된다. 상기 자료로서 성계 보유수수의 변화를 추산해보면 성계 보유수수는 81년 11월을 기점으로해서 완만한 감소현상을 보이게 될것이며, 강제 환우한 닭수수가 많을것으로 추정되어도 82년 3~5월부터 보다 급속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표1)에서 크로즈업 시킬 사실을 보면, 80년 5월부터 10월까지 77년이래로 상당히 많은 수량이 집중 출하되어 81년 중반 및 후반기 계란생산량을 예년보다 집중 증가시킨 요인이 되었으며, 불행히도 이로인해 현재 성계 보유수수는 극히 완

표 2. 계란생산 예고지수

월별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0	100	97.2	90.2	94.0	91.9	87.9	84.1	79.9	76.2	76.0	76.9	79.9
81	81.8	84.3	86.0	87.2	85.1	82.0	79.2	77.1	75.2	74.3	73.2	71.5
82	71.1	70.5	70.3									

만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상기 한바 있듯이 80년 11월이후 극히 저조한 출하 현상은 빠르면 82년 상반기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계란생산지수 및 예고지수

(표 2)에서 보듯이 80년 1월을 기준 100으로할때 81년 상반기에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하반기가 될수록 서서히 감소치를 보이고 있으며 82년도에도 생산지수는 연말까지는 계속 감소수치를 나타낼것으로 사료된다.

3) 채란계 사육 추세 변화

우리나라 채란업계의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 80년 후반부터 한국 양계업에도 유색계 선호도가 높아져 81년의 경우 전체 채란계 보유수수중에서 유색계 사육 비중이 약 50%선에 육박했으리라 추정되어, 82년도의 실제 계란생산지수는 백색 채란계를 기준했기때문에 상가지수보다는 조금더 낮아질것으로 보아도 좋겠다.

계란소비량추정에 관한 자료

1) 년도별 축산물소비현황 및 전망

당국이 77년도에 관측 전망한 축산물 장단기 소비추세를 보면,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을 79년 129개, 80년 146개, 81년 165개로 추정 계획했으나 79년 오일쇼크등 국제적인 불경기 영향으로 실제로 소비된량은 79년 111개, 80년도엔 115개정도에 그쳤으나 매년 증가한것만은 사실이다. 81년도는 80년대비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바뀌었으며, 82년도엔 금년대비 다시 플러스 성장을 경제당국이 전망

하고있는바 전 산업경기 회복추세의 영향으로 계란 소비량도 82년도엔 81년보다 증가될것임에 매우 희망적일수 있겠다.

2) 인구증가 및 식생활 패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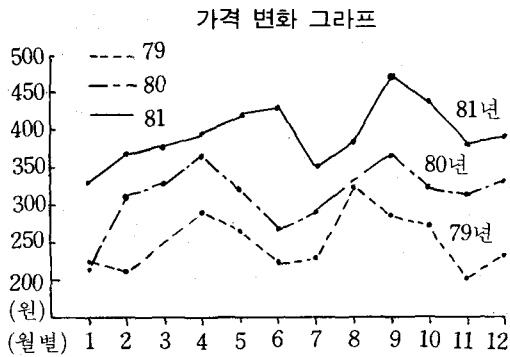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약 1.6%의 자연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도시 식생활 패턴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물 가져옴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선진외국의 예를보아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축산물 소비량이 거의 정비례로 증가했음을 여러 통계에서 자주 보았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인구증가 및 식생활 개선에 따른 계란 소비량증가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3) 계란가는 매년 상승했다

표 3. 계란가격 변화(대란기준)

	79년	80년	81년	80/79	81/79
1	250	238	333		
2	223	313	363		
3	263	342	370		
4	310	356	350		
5	270	323	417		
6	233	260	436		
상반기 평균	258	305	378	118.2%	145.7%
7	246	293	349		
8	333	333	386		
9	300	360	459		
10	273	336	433		
11	196	333	371		
12	243	343	(400)		
상반기 평균	248	333	400	134.2%	161.2%

( ) : 예상수치임



(표3)에서 보듯이 계란가는 매년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은 계란가상승이 원가상승에 못미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명년도엔 생산원가의 75% 이상의 비중을 가진 사료 사정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하리라는 예측이다.

### 종합분석 전망

계란가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나타내고, 그 변동도 균형의 정도 차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언급한바

있다. 82년도에는 공급, 수요의 추세를 검토해본결과, 계산생산측면에서는 80, 81년보다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계란 소비측면에서도 특별한 감소요인이 없으므로 계란가격 형성은 비교적 희망적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지만 계란가격은 매년 상승되지만 생산원가 상승폭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된 경향이 있듯이, 계란생산량 및 소비량추세 측정만으로 경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는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즉 생산원가가 계란가상승에 비례적으로 상승한다거나, 소비량추세가 예기치않은 요인으로 생산량 감소추세를 밀둔다면 또다시 적자경영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므로 채란업자의 기본자세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지기전에 우리 스스로가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즉,

- 생산성 향상노력(우수한 품종 선택, 사양관리개선, 사양환경개선으로 원가절감)
- 계란의 상품성 향상(청결, 파란감소)
- 유통과정 문제점 개선
- 계란소비촉진 활동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 수원가축약품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750-66  
(청림예식장 1층)  
☎ (수원 2-2583)

본점 (청림예식장 1층)

**\*축산인의 사랑방\***  
**\*가축질병·사양관리상담\***  
**\*가축약품\***  
**\*축산기구\***  
**\*기타축산관계일체\***